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空士新聞

제367호

2023년 4월 7일(금요일)
(창간: 1957. 10. 10.)

| 발행인 이상학 | 주간 서동우 | 부주간 임혁 | 편집국장 최성영 | 발행 공군사관학교(공사신문사) | TEL 043)290-6099 | 주소 281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635 사서함 335-1호



차오름 71기, 하늘과 우주를 향한 비상

제71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 거행

지난 3월 8일 수요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4년간의 사관생도 과정을 수료한 190명(외국군 수탁생도 4명, 여생도 18명)을 대상으로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졸업 및 임관식은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이상학 공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해 공사 지휘관 및 참모, 군 관계자와 졸업생 가족을 포함한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의 부대개방 행사로, 총 1,600여 명의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행사 장면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친지들을 위해 국방TV와 국방뉴스 유튜브, 국방홍보원 페이스북 등으로 생중계되었다.

본 행사는 우등상 수여, 졸업증서 수여,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대통령 축전 낭독, 국방부장관 축하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 소위로 임관하는 졸업생들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원하는 사관생도 분열과 공군 주력 전투기들의 공중분열이 이어졌다. 또한,

이번 졸업 및 임관식 행사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 미 공군사관학교 교장, 미 7공군 사령관 등 미 공군 주요 지휘관의 축하 메시지 영상이 전달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공사 제71기 신임 장교들은 2019년 입학하여 4년간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 생활교육 그리고 학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군사학과와 함께 전공에 따라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인공지능 연구, 비행체 설계 및 실습 등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을 통해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역사탐방, 국토순례, 성무인 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리더십, 국가관을 배양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송경수, 김태훈, 김승현 소위가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김재영 소위·예비역 김종규 중령(공사 38기), 이채원 소위·이준호 대위(공사 67기) 등 조국 영공 수호의 의지를 함께 다진 보라매 부자, 보라매 남매가 탄생

했으며, 미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 임관하는 김태훈 소위, 이승규 소위, 이훈 소위, 항공우주분야 관련 대외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심재성 소위, 이흥기 소위 등이 화제의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이상학 공군사관학교장은 축사에서 신임 장교들의 졸업 및 임관을 축하하며, 신임 장교들에게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투형 강군 건설의 사명을 훌륭히 완수해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하를 통해 신임 장교들에게 선배 공사인들이 그래왔듯 대한민국의 영공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굳건히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 졸업생들과 재교생은 신임 소위들의 졸업 및 임관을 축하하는 마음과 사관생도의 패기와 열정을 담아 공군사관학교 전통인 '독수리 구호'를 외치며 졸업식을 마무리했다.

생도기자 72± 이재영
7513119@mnd.go.kr



제75기 예비생도 성무기초훈련 수료

사관생도의 길로 나아가는 힘찬 첫걸음

지난 2월 23일 수료식을 끝으로 1월 27일부터 시작된 제75기 예비생도들의 성무기초훈련이 마무리됐다. 제75기 성무기초훈련은 보라매 결의를 시작으로 4주간 진행됐으며 총 229명이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했다.

성무기초훈련은 공군사관학교의 별칭인 성무대의 정통성 계승과 사관생도 정체성 강화를 위해 이전까지 쓰이던 '기초군사훈련'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본 훈련은 4주라는 기간 안에 예비생도를 민간인에서 공군사관생도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1주 차 적응

및 기본자세 확립, 2주 차 인내 및 군사훈련 습득, 3주 차 극복 및 군사훈련 숙달, 4주 차 협동 및 생도 생활 준비/적응 순의 주 차별 핵심 목표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이번 성무기초훈련에는 생활교육 대대장생도인 5중대 황지호 생도와 훈련교육 대대장생도인 8중대 김영환 생도를 중심으로 한 72명의 72기 지도생도들이 후배 생도 양성을 위해 투입됐다. 생활교육은 성인지 교육, 블랙이글스 조종사 특강, 공군핵심가치/공군사/국가안보관 정신교육, 생도 정체성 특강, 국가관 함양 교육, 중대장 및 대대장 시간 등의 학과로, 훈련교육은 군가 교육, 총기분해결합, 방독면 휴대법 및 착용법, 집총제식, 도수제식, 도수체조, 응급처치, 가스체험, 영점사격, 행군 등의 학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보라매가 날개를 펼치듯, 성공적으로 훈련을 이수한 75기 예비생도들도 이제는 생도로서 당당히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었다.

생도기자 72± 황윤재
7513180@mnd.go.kr



72기 사관생도 1차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 시행

지난 2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항공우주의료원 비행훈련센터에서 69명의 생도를 대상으로 72기 1차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G-test)은 큰 중력가속도가 몸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조종사가 조절 능력 불가상태나 의식상실(G-LOC)상태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다. 가속도 내성 강화 훈련은 중력가속도가 큰 상태에서 의식상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L-1호흡법 및 훈련 중 올바른 시행 자세에 대한 이론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이론교육 이후 생도들은 3일의 훈련기간 동안 3개의 조로 나뉘어 훈련 장비에

답승하여 실습을 진행했다.

우선, 1.2G의 중력가속도부터 0.1G씩 완만하게 증가하는 중력가속도를 버티는 완가속도 훈련이 진행됐다. 이는 개개인의 G-내성을 판단하는 훈련으로, 중력가속도를 증가시키는 레버를 당긴 후, 의식상실이 되기 직전까지 레버를 잡고 있다가 의식상실 직전에 레버를 놓아 본인이 최대로 견딜 수 있는 중력가속도를 측정함으로써 G내성을 판단하는 훈련이다. 이후, 5G에서 30초를 견뎌내는 급가속도 훈련이 진행됐다. 완가속도 훈련과는 다르게 중력가속도를 증가시키는 레버를 당긴 직후 급격하게 5G의 중력가속도로 상승

하며 30초를 견뎌내야 하는 만큼 자신의 의지대로 레버를 놓을 수 있는 완가속도 훈련보다 강한 정신력이 요구된다.

정확한 호흡과 함께 다리와 복부에 힘을 주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가속도 증가에 따라 뇌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의식이 희미해지는 '블랙아웃'을 겪게 된다. 더불어, 높은 압력으로 인해 다리와 팔 등에 실핏줄이 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훈련과정에서 올바른 L-1호흡과 자세가 요구되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생도들은 비행 시 높은 압력을 극복하면서 정상적인 신체 능력과 정신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도기자 72± 신관호
7513189@mnd.go.kr



제75기 사관생도 입학식

지난 2월 24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제75기 사관생도 입학식이 거행됐다. 입학식 대표인 75기 김민주 생도 등 229명(남생도 195명, 여생도 34명, 해외 수탁생도 5명)의 생도는 보라매 결의와 입교식을 시작으로 4주간의 성무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사관생도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입학식은 국민의례, 입학 신고, 교장 축사, 입학 선물 증정, 축하 영상 상영, 공군가 및 교가 제창, 분열, 축하 비행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특히 이날 75기의 10년 선배인 65기 김규철 대위가 대표로 입학생도 대표에게 입학을 축하하는 선물을 전달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상학 공군사관학교 교장은 축사를 통해 75기 사관생도의 힘찬 비상을 기원하며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얻은 오늘의 성취감과 자긍심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생도생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활기찬 도전으로 하루하루 정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75기 김강민, 진재현 생도 등 총 14명이 공군인 가족의 뒤를 이어 공사에 입학했으며, 공사에 재학 중인 73기 이윤서 생도의 여동생인 75기 이윤성 생도가 언니를 따라 성무대에 발을 들이는 등 총 15쌍의 ‘보라매 가족’이 탄생한다. 또 몽골,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태국, 필리핀 등 5개국에서 온 외국인 수탁생도 5명도 정식 공군 사관생도가 됐다.

생도기자 72± 김규희
7513014@mnd.go.kr



72-1차 지휘군무 이양식

2월 24일, 명예광장에서 사관생도 72-1차 지휘군무 이양식이 거행됐다. 지휘군무 이양식에서 졸업을 앞둔 71기 군무생도가 최고학년이 된 72기 군무생도들에게 사관생도 자치군무의 상징인 지휘도를 이양하였다. 이는 앞으로 학교를 이끌어 갈 자치군무를 후배에게 넘겨준다는 의미가 있다. 사관생도 지휘군무는 후배생도들을 이끌며 자치군무를 수행하며 리더십을 배양하고 장차 장교가 될 생도들이 지휘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올해부터 지휘군무가 이전에 운영되던 3차까지 이루어진 차수제에서 학기별로 바뀌는 학기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전에 운영되던 차수제는 군무생도가 세운 군무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과

마지막 차수인 3차 군무 시 중복 군무를 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군무를 원하지 않는 생도가 군무를 하게 된다는 일부 단점이 존재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차수제가 아닌 학기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이양식에서는 71-3차 전대장생도인 김송현 생도가 72-1차 전대장 생도인 강전영 생도(7중대 4학년)에게 자치군무의 상징인 지휘도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휘군무를 이양하였다.

강전영 전대장 생도를 중심으로한 전대본부는 72-1차 군무기간 동안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는 뜻의 ‘불광불급’을 군무 모토로 삼으며 생도 생활 중 무언가에 미쳐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생활하는 뜨거운 생도전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성 1대대장 생도(4중대 4학년)를 중심으로 한 1대대 본부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생도다움을 강조한다는 의미의 ‘본(本)’을 군무 모토로

삼았다. 기본에 충실하며 서로를 본받는 1대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원준 2대대장 생도(6중대 4학년)가 이끄는 2대대 본부는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아니하는 ‘백절불굴’의 정신을 군무 모토로 삼아 어떤 일에도 올곧음을 유지하여 2대대를 이끌며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 나아가는 선도적인 2대대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지휘군무 이양식을 주관한 생도전대장 서동우 대령은 1년간 학교를 이끈 71기 지휘군무생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생도대를 이끌어 나갈 72기 지휘군무생도들에게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의 격려 박수를 보내며 지휘군무 이양식을 마무리했다.

생도기자 72± 조민혁
7513157@mnd.go.kr

정에 공군 장교를 향한 한 걸음, 동계학기

체계적인 수업을 통한 장교 역량 강화

지난 2월 6일부터 23일까지, 생도들을 대상으로 동계학기가 진행됐다. 약 3주 동안 1, 2, 3학년(72~74기) 생도들은 토론 수업과 군 내외 명사 특강에 참여했다. 이번 동계학기에서는 지난 학기 중에 실시한 성무토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관생도들의 리더십 역량 및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토론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집중 토론 기간이 운영됐다.

집중 토론은 동계학기 기간을 한 회기가 4일이 되도록 나누어 총 3회기로 구분하여, 학년별로 할당된 3개의 주제를 각 회기에 하나씩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제 중 하나인 사관학교 문화는 생도문화에 대한 자성적 토론 기회를 부여하고자 전 학년 공통으로 설정됐다. 이외 주제는 셀프리더십, 스포츠 팀 리더십(1학년), 사회문화 정책, 과학기술 정책(2학년), 국방안보와 국방과학(3학년)으로 구성됐다. 주제별 지도교수는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배정함으로써 전문성을 더했다. 토론 진행 시에는 종합적인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해 찬반 대립 토론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발표 형태의 토론, 순환식 토론 등의 다변화된 토론형식을 적용했다. 추가적으로 한 회기가 종료될 때마다 생도들에게 토론 과정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결과 분석 능력을 키우고 성과를 공유하도록 했다.

1학년의 주제인 셀프리더십이란 자기관리에서 확장된 개념이다. 자아와 삶에 대한 통찰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리더십인 것이다. 이를 목표로 1학년의 피동성을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생각 표현을 장려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그 예시로 꿈과 비전, 장교로서의 삶(Officership), 인생 계획 등에 관한 강의를 청취하고 분임 토의를 시행했다. 스포츠 팀 리더십 토론의 경우 강의실이라는 정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축구, 배구와 같은 격렬한 신체활동을 동반한 의사소통을 연습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는 리더십과 팔로워십 현상을 전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체험하

기 위함이다.

2학년의 사회문화 정책토론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회문화 현상을 주제로 하여 여러 개의 논제가 서로 얽힌 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찬성과 반대가 물고 물리는 순환식 토론이었다. 이때, 단순 논리 공방만이 아니라 해결전략 수립, 정책 발표와 정책 보고서 작성을 종합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회 현실에 대한 통찰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계발하였다. 과학기술 정책토론의 경우, 생도들이 군의 리더로서 무기체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3학년은 23-1학기부터 실시할 캡스톤 프로젝트를 대비하여 수준 높은 학술토론을 시행했다. 캡스톤(Capstone)이란, 피라미드의 최상단 사각뿔을 이르는 말이자, 학습 과정의 최고 정점을 뜻하는 말이다. 즉 캡스톤 프로젝트란 졸업설계, 졸업논문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국방안보 토론은 각자의 연구 주제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및 안보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익히는 과정이다. 국방과학 토론의 경우도 위와 유사하게 연구 주제를 방위산업, 기술개발, 산업정책, 기술혁신 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정이다.

동일한 기간 동안, 4학년(71기) 생도들은 초급장교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군의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초급장교로서의 기본 소양, 직무능력과 리더십 함양, 실무 및 작전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여 특강과 견학 위주로 진행됐다. 공군 정책 교육에서는 공군기본교리, 공군 신기술, 우주 정책, 무인기 등을 주제로 현장에서 실무를 감독하고 있는 선배 장교들과의 시간을 가졌다. 초급장교 소양 교육은 건강, 시간, 금전 관리나 보고서 작성, 부사관과 병의 역할 이해, 상담 기법 등 실효성 있는 과목으로 구성됐다. 이에 더해 실무 및 작전 이해를 위해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연합사령부와 LIG넥스원, KAI 견학이 이루

어졌다. 71± 김승현 생도는 “아직 백지와도 같은 장교 생활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또, 공군이 우리나라를 위해 육군, 해군과 비교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앞으로 어떤 직무를 맡든지 공군의 목표와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장교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생도기자 73± 이유진
7513328@mnd.go.kr

동계휴가

사관생도들은 22년 12월 30일부터 23년 2월 5일까지 약 5주간의 휴가를 통해 한 학기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다. 그 중 비행 1차반에 입과 예정인 71기 생도들은 본격적인 비행훈련 입과 전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은 후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된 생활훈련을 이수하기 위해 남해에 위치한 생활교육대로 떠났다. 한편 성무기초훈련 생활·훈련 지도생도로 선발된 72기 생도들은 새로 들어오는 75기 예비생도들을 위해 동계휴가를 반납하고 짧은 휴가를 마친 후 조기귀영하여 성무기초훈련 준비에 힘썼다.

이외의 대부분의 생도들은 휴가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 계발을 통해 여러 역량 함양에 힘쓰며 각자 의미있는 휴가를 보냈다. 이번 동계휴가 또한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사적국외여행이 허가된 휴가였기에 많은 생도들이 견문확대를 위한 사적국외여행을 실시했다. 북유럽 3개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 다녀온 8중대 1학년 한찬희 생도는 여행국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를 느끼면서 국제적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생도기자 74± 김영환
7513453@mnd.go.kr

2023 동계학기 특강



이번 동계학기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예년과 달리 많은 특강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생도들은 학년별 특강 및 전 생도 특강 등을 수강하였다. 이번 특강 강사로는 김진형 제독, 전제용 장군, 류봉균 대표, 박용후 대표, 이국종 교수, 박민식 보훈처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빙되었다.

김진형 제독은 해군사관학교 36기로 임관하여 해군 군수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제1함대 사령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하고 해군 소장으로 전역했다. 김진형 제독은 특강에서 장차 장교가 될 사관생도가 갖춰야 하는 역량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명예(honor),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옳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courage),

리더로서 공감의 언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격을 강조했다.

전제용 장군은 공군사관학교 36기로 임관하여 공군에서 조종사가 아닌 장교 중 최초로 중장에 진급했으며 비육군 장교 중 최초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했다. 전제용 장군은 본인의 성공 이면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극복한 비결로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셀프리더십을 바탕으로 리더로서의 기준과 장교핵심가치에 대해서 강연하였다. 정의, 신뢰, 모범, 책임, 헌신, 행복이라는 장교핵심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기준으로 삼아 실패를 극복하는 힘을 얻고 성공적인 장교 생활을 할 것을 생도들에게 당부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에피시스 사이언스(EpiSys Science)의 류봉균 대표는 인공지능 무인기에 대해 강연하며 AI가 하이브리드 모델 기반 도그 파이트를 수행하는 실험에 대해 소개했다. 류봉균 대표는 AI가 계속 발전하며 전투 수행 능력이 발전하고 있지만 실수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간 조종사의 역할 역시 막중하다고 했다. 그러나 먼 미래에는 모든 공중전이 인간 조종사가 직접 전투기를 조종할 필요 없이 무인 전투기끼리 전투하고 인간은 지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공중전의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하며 생도들에게 미래에 변화할 공중전에 대해 주목할 것을 당부했다.

삼성전자 마케팅 전략고문, ㈜우아한형제들 커뮤니케이션 총괄이사, 금융감독원 홍보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관점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박용후(㈜PHY 대표)는 관점을 통해 생각의 방향이나 구조를 바꾸는 ‘관점 디자인’에 대해서 강연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답

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질문의 전제를 바꿔보고 그에 맞는 행동양식을 설정한다면 문제해결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 “시간과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벤치마킹보다는 퓨처마킹을 통해 미래지향적 인재가 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외상의과수술 권위자이며 명예 해군 중령인 이국종 교수는 외상외과 전문의로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과 군인에 대한 철학을 강연하며 ‘누군가가 노고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생도들에게 공군 장교로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준과 교양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불만만 토로하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에 따른 보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의하며 “보훈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국방력과 국력 강화의 필수조건”이라 하였다. 선진국들의 보훈 문화와 보훈의 효과를 설명하며 보훈은 국가의 책무이며 보훈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동계학기 특강을 통해 생도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고 장차 공군 장교로서 필요한 덕목들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생도기자 74± 이상우
7513548@mnd.go.kr



성무기초훈련을 마치며

성무기초훈련을 무사히 수료한 229명의 75기 사관생도들이 생도대에서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한 달간 그들과 동고동락한 72명의 지도생도들은 이제 선배 생도가 되어 그들을 맞이한다. 다음은 땀과 눈물이 넘치는 열정 가득한 그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의 이야기다.

생활대대장생도 황지호



Q1. 생활대대장생도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72기 기초군사훈련 좁고, 무섭고, 배고픈 4주라는 기간동안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69기 생활대대장생도 임수환 선배의 말 한마디는 저의 나약한 마음을 다잡고 초심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저도 꼭 나중에 예비생도의 꿈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에 생활대대장생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성무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주'해 낸 소감이 궁금합니다.

성무기초훈련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훈련과 정신적 압박을 이겨내는 후배들이 자랑스러웠고, 훈육요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한 이 4주가 생도생활 중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하루에 3-4시간을 자며 흘린 동기생들의 땀방울과 초반 담당 예비생도의 퇴소에 흘리던 눈물이 기억나며 한 달여간의 기간 동안 우리의 열정과 진심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비생도들에게 한 수많은 말들 중 하나라도 큰 힘이 되었길 바라며 다시 생활대대장생도에 지원하라고 한다면 일말의 고민도 없이 수락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어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Q3. 75기 생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78기 후배들에게 우리보다 더 좋고 따뜻한 선배가 되어주길 바라.

75± 진재현(보라매 형제)



Q1.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어릴 적부터 가족들이 좋아하던 군 관련 매체에 영향을 받아 군인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고등학교 시절, 모교 입시 설명회에 찾아와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공군사관학교를 설명하던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에서와 다른 형의 그 늠름하고 멋진 모습에 이끌려 공군사관학교 입학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Q2. 성무기초훈련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1급 비상훈련 당시 제2의 생명인 총기를 빼앗기고 완전군장에 명예광장 구보를 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기억이 있었기에 성무기초훈련을 이겨낸 제 자신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Q3. 형(69± 진희석)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다녀온 사람만 알 수 있다고, 입학을 반대하면서도 합격했을 때 가장 축하하고 반겨준 것은 다름 아닌 형이었어. 형이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무사히 임관한 만큼, 동생으로서 나도 끝까지 정진해서 훌륭한 공군 장교가 되고 싶어!

생활작전참모생도 김선훈

Q1.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생활작전참모생도에 지원할 의향이 있나요?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생활교육대대 작전참모생도라는 직책은 제 생각보다 더 힘들었고 4주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에 치여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후배를 키운다는, 입학한 후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Q2. 75기 생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4년간의 생도생활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됐든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정도는 누구보다 열심히 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의 무궁무진한 생도생활을 응원합니다!

훈련대대장생도 김영환



Q1. 성무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소감이 궁금합니다.

자식 기수이자 3년마다 돌아오는 '할 수 있다' 기수인 75기를 누구보다 멋있고 강한 후배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걱정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예비생도들이 지도생도를 믿고 '악으로 강으로' 따라와 주었기에 성무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2. 75기 생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4주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을 정글 같은 생도대에 보내기엔 아쉽지만 이제 보내줘야 할 때이기에 지도생도와 예비생도에서 선배와 후배로 만나고자 합니다. 입학을 정말 축하하고 설마 아직까지 훈련대대장생도가 누군지 모르는 75기는 없겠지?

75± 김민주(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Q1.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인생을 수영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채워보고 싶어 수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친구의 영향으로 비행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직접 조종하고 싶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제게 그 꿈을 향한 좋은 길이 되어줄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 영공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과 설렘이 커져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2. 고된 성무기초훈련을 버텼던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성무기초훈련은 매일 체력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잡았고 그런 날이 반복되니 자신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힘들 때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등을 밀어준 동기들 역시 제 한계를 넘어 성무기초훈련을 완주할 수 있었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Q3. 앞으로 어떤 생도가 되고 싶나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제 좌우명처럼 1학년 생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자랑스러운 75기 후배가 되겠습니다!

2023년 생도전대 신임 지휘관 인터뷰 생도전대장, 1대대장의 이야기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인사 명령에 따라 생도대에 신임 지휘관들이 찾아왔다. 신임 지휘관들은 생도들을 바른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생활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신임 생도전대장과 1대대장을 인터뷰하였다.



서동우 생도전대장



이국노 1대대장

Q1 군 복무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서동우 생도전대장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군 생활을 돌아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명령에 항상 최선을 다했고 임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임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인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국노 1대대장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지요. 성실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지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성실함을 기반으로 성과를 이루어낸 것 같아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타고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만 앞서나가는 군 생활을 할까요? 아닙니다. 긴 군 생활에 걸쳐 계급마다 요구되는 가치관이나 도달해야 하는 목표 수준들이 있지요. 타고난 무엇인가가 없어도 누구나 성실히 노력한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슥 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거북이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세요.

Q2 ‘바람직한 생도像’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동우 생도전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 즉,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힘들고, 삶 자체가 딱딱해지고 융통성이 없게 되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관생도라면 민간인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이나 사회에서 바라는 사관생도로서의 모습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간극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생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도로서의 이상적인 모습과 편하게 살고 싶은 현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나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생도가 이상적인 생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상적인 생도는 아니었으나 밸런스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생도 생활을 했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별척 보행, 징계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해진 선을 넘지 않으면서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 저처럼 즐겁고 행복한 생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국노 1대대장

바람직한 생도像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명예’지요.

생도라고 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많습니 다. 성무정신, 공사심훈 등이 있지요. 그중에서도 제일은 ‘명예’입니다. 우리는 생도 생활 하면서 명예 구호를 자주 암송합니다. 예전의 명예 구호는 지금과 달랐다는 것, 알고 있나요? ‘명예.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반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리고 행하면 그것이 명예이다.’ 과거의 명예 구호입니다. 상당히 직관적이면서도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명예’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명예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란 정형화된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명예와 너의 명예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맞으면 모두 명예가 맞습니다. 생도들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명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편함을 추구하며 불의를 저지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떳떳해지십시오.

Q3 예전과 지금의 생도 생활,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동우 생도전대장 전반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하지만 생도들 복지 차원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생활실 내 취식이 가능해진 것과 방마다 냉장고가 있는 것, 또 중대 휴게실에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가 비치된 것을 보면 생활실에서 몰래 먹다가 걸려서 혼난 우리 때에 비교하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웃음)

이국노 1대대장

졸업 후 만 20년 만에 사관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마치 고향을 찾아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와 같이 말입니다. 사관학교에 없는 동안에도 사관학교와 생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만큼 생도들이 굉장히 잘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의 모습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경직된 생활을 했습니다. 저학년은 복도 통행조차 지금만큼 자유롭지 못했지요.(웃음) 지킬 건 지키되 편안하고 자유로워진 생도들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생도들이 자유로움에서 비롯된 여유, 창의성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보기 좋습니다.

Q4 “나는 이런 사람이다!” 생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동우 생도전대장 “나는 최고의 생도전대장이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제 소개를 하는 모든 자리에서 “나는 최고의 000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이미 최고라는 자만이나 오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에게 최고의 000으로 기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일종의 자기 암시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면 모두 좋아하더라고요.(웃음) 이번에도 최고의 생도전대장이라고 소개한 만큼 여러분께 최고의 생도전대장으로 기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국노 1대대장

내가 보는 나,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나. 두 가지 버전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는 나 자신은 착하고 순진한 것 같아요. 놀기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를 딱딱한 사람으로 보곤 합니다. 소위 말하는 FM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좋게 보면 바르고 일관적인 이미지지만 후배 입장으로 보면 조금 다가가기 힘들 것 같아요.

Q5 오랜만에 생도대에서 생도들을 맞이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서동우 생도전대장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관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이곳에 돌아오고픈 마음이 컸습니다. 중대장, 훈육관으로도 근무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고 대대장 때도 타 이미지가 안 맞아서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와서 생도전대장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결정된 후부터 너무 행복했고 생도들과 함께 주짓수를 할 생각에 부푼 마음을 안고 생도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생도들과 대화해보니 다들 훌륭하고 멋진 친구들이어서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생도들과 대화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국노 1대대장

저는 2중대 출신입니다. 당시 정예동관의 2중대라고 하면 정말 빠삭하고 힘든 이미지가 강했지요. 지용 중대와 무용 중대를 동시에 했답니다. 자부심이 정말 컸기에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2중대 별칭이 ‘한마음’ 2중대이지요? 예전에는 ‘신바람’ 2중대였답니다.

저도 그렇고 사관학교 출신 선배, 동기, 후배들 모두 출신 중대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아까 제가 사관학교에 다시 돌아온 것을

연어 이야기에 비유했었지요? 그만큼 사관 학교는 저에게 있어 고향,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예동관에서 근무하며 2중대 후배들, 그리고 생도전대 후배들을 보면 고향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생도 생활하며 외출, 외박에 임하면 청주 시내도 자주 나갔는데 친절하게 해주시는 주민들, 맛있는 청주 음식 전부 다 좋았어요. 사관학교가 있는 청주 자체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생도 시절에 만난 아내 역시 청주 사람입니다.(웃음)

서동우
생도전대장

군인은 군인다울 때가 제일 멋있고 생도는 생도다울 때가 가장 멋있습니다. 생도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군사관 생도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을 잊지 말고, 얼마나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지금의 생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항상 마음에 품고 생활하십시오. 사관생도로 지내는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국노
1대대장

이전 질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규정에 반하고 양심에 반하는 일은 행하지 마십시오. 지켜야 하는 것은 지키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또 졸업을 앞둔

71기 생도들에게는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네요. 생도들의 最古參, 4학년이 되면 마치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여유롭고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생도대 생활에 적응하고, 후배들도 많이 생기죠. 그런데 막 임관하고 소위 계급장을 달면 다시 어린아이 취급을 받게 됩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으며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지요. 그럴 때 기죽고 작아지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당당해지세요. 모두에게 통과 의례인 시기입니다. 겁먹지 말고 새로운 일에 부딪히면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열심히 배워 요령을 쌓다 보면 언젠가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줄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생도기자 73士 김주연, 변선호
7513290@mnd.go.kr

Q6 마지막으로 생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관생도 생활규정 · 생활지침서 전부개정

사관생도 기본권 보장 및 생활문화 개선 결과 반영

개정된 사관생도 생활규정·생활지침서가 2월 22일부터 적용됐다. 시대 흐름을 반영하되 공군사관학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매년 일부 개정해 왔지만, 전부 개정이 된 건 2017년 이후로 약 5년 만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교육 적절성에 대한 훈육요원들의 논의와 특히 규정을 적용받는 생도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관생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정이다.

▲ 관련 기사 군사신문 제364호 <생도전대장님께 듣는 사관생도 생활규정 개정 소식> 참고

주요 변경 규정 · 지침

1 지휘근무 차수 변경 (사관생도 생활규정 제4장 제2절, <지휘근무>)

4학년을 중심으로 1년에 3개 차수(2월, 5월, 10월)를 운영하던 생도지휘근무는 규정 개정 후 학기별 1개 차수를 운영한다.

2 학년별 공사 생도 중점가치 변경 (사관생도 생활규정 제5장 제1절, <생활지도>)

공사 생도 중점가치란, 생도 생활상의 강령인 성무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성무정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기고 공군핵심가치와 공사 생도 중점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정신을 말한다. 규정 개정 전에는 1학년은 복종, 2학년은 모범, 3학년은 자율, 그리고 4학년은 지도라는 모토 하에 생도 생활에 임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라는 공군핵심가치를 한해당 하나씩 함양해나갈 수 있도록 분배했다. 1학년은 도전, 2학년은 헌신, 3학년은 전문성, 4학년은 팀워크로 변경됐다.

3 1학년생도 생활규칙 (사관생도 생활규정 제5장 제4절, <예비생도·1학년생도 생활지침>)

1학년생도 관습은 1학년 생도들이 생도로서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는 추가적 지침이다. 이는 4주간 적용됐으나, 규정 개정 후 5월의 군사훈련 집중기간을 기준으로 1단계와 2단계 기간으로 나뉘어 한 학기 동안 진행된다. 주중 18:30~19:00 뽀글을 실시하고 주 2회 이상 일일 체력단련을 30분간 실시한다. 또한, 20:00~22:00까지 자습시간을 운용한다. 1단계 기간에는 각종 안전저해요소를 고려하여 중대 지휘근무생도가 인솔하며, 2단계 기간에는 별도의 인솔이 요구되지 않는다.

4 외출/외박 귀영시간 변경 (사관생도 생활규정 제5장 제5절, <일과운영 및 통제>)

귀영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외출·외박 후 20:10에 시행하던 성무점호가 21:10으로 변경됐다.

5 징계 일과 (사관생도 생활규정 제10장 제2절, <징계 [필벌(必罰)]>)

징계는 태만, 부주의 또는 고의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군기 및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한 자에게 행한다. 규정 개정 후, 예복을 착용하고 일정 시간 동안 집중한 채 분당 120보 이상으로 보행하는 벌칙보행이 폐지됐다. 추가사항으로는 근신 종료 시, 규정평가를 실시하고 불합격한 경우 합격할 때까지 매주 재평가를 시행한다. 이에 더해 ‘근신체력단련’이 추가됐다. 이는 자신의 징계 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일정 시간 동안 지정장소에서 의무적인 체력단련 일과를 수행하는 것이다. 시간은 19:00~20:00로, 성무종합경기장에서 학년별 체력평가 최저기준 이상을 충족시키는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그리고 3km 뽀글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완전군장 뽀글을’이 추가됐다. 이는 자신의 징계처분 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주말 일정 시간 동안 지정장소에서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뽀글을 실시하는 것이다.

6 ‘8+8’, 명예최저기준 적용 (사관생도 생활규정 제10장 제2절, <징계 [필벌(必罰)]>)

세부 징계처분 항목이 수정됐다. 일례로 장기근신 1급은 개정 전 징계별점 60점, 외출제한 12주, 벌칙보행 및 봉사 48회에서 개정 후 징계별점 60점, 외출제한 8주, 완전군장 뽀글을 16회, 근신체력단련 24회로 변경됐다. 또한, ①교육운영위원회에서 퇴학을 심의하여 ‘생도생활 지속’으로 의결된 자, ②훈육분과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명예생활 최저기준 위반행위’, ‘공사 전통 위반행위’, ‘반사회적·비도덕적(비신사적) 행위’ 중 하나로 인정된 자, ③기타 사안의 위중함이 위 각 사유에 준할 정도로 현저하여 추가 징계가 요구되는 자는 기처분된 징계와 별도로 외출제한 1~8주, 완전군장 뽀글을 4~16회, 근신체력단련 6~24회 범위에서 추가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7 특별훈련에서 군기훈련으로 (사관생도 생활지침서 제4장 제1절 <생활지도>)

생활규정 및 지침서에 위배되는 과오에 대한 선배생도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행되던 ‘특별훈련’이 보다 목적에 알맞은 용어인, ‘군기훈련’으로 수정됐다. 또한, 군기훈련 항목 중 버피테스트가 삭제됐다.

8 아침구보 (사관생도 생활지침서 제4장 제4절, <일과 운영 및 통제>)

변경 전의 뽀글을 거리는 뽀글을 구간 노면상태 등 안전저해요소를 고려하여 당직훈육관 판단하에 융통성 있게 적용했다. 주로 단재관 주위를 한 바퀴 뛰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아침식사를 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뽀글을 경로를 명시했다. 대대별로 구분해 아래와 같은 코스를 일주일 간격으로 교차 시행한다.

구분	경로	거리
제1 코스	생도전대 → 안중근홀 → 성무탑 → 창석관 → 식당	1.3Km
제2 코스	생도전대 → 무용관 → 하늘공원 → 안중근홀 → 단재관 → 식당	1.5Km

* 기초군사훈련 명칭이 성무기초훈련으로 변경됐다.

편집국장 72士 최성영
7513165@mnd.go.kr

하늘을 배우자



K-방산의 주축, FA-50

생도기자 73± 김민
7513211@mnd.go.kr

2022년,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2021년 70억 달러라는 수치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기록이다. 정부는 올해 국산 항공기 수출을 주력으로 17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출액을 방산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5억 달러 규모의 노후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슬로바키아와 2021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어 그 결실이 맺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이 협약 체결식에 직접 참가하여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FA-50 경공격기 (출처: 한국항공우주산업)

FA-50

FA-50 경공격기는 TA-50 보다 확장된 전술 능력을 갖춘 항공기로, 정밀유도무기 운용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되어 전천후 주·야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¹EL/M-2032 다기능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기존 60km에서 150km로 확대했고, ²전술데이터링크(TDL; Tactical Data Link) 표준인 Link-16과 야간 임무 수행을 위한 NVIS(Night Vision Imaging System)을 갖췄다. TA-50에서 운용하던 기존 무장에 더해 합동정밀직격탄(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과 바람수정확산탄(WCMD; Wind Corrected Munition Dispenser), 한국형 GPS 유도폭탄(KGGB; Korea GPS Guided Bomb) 등 다양한 정밀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총 7개의 ³하드포인트에 최대 5.4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적 레이더 추적을 경고하는 RWR(Radar Warning Receiver), 적 위협에 수동, 반자동,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프(chaff)와 플레어(flare)를 발사하는 CMDS(Counter Measure Dispenser System)를 적용하여 자체 보호 능력을 확보했다.

폴란드로의 수출

지난 2월 22일, 제1전투비행단에서 폴란드 공군 조종사 4명의 비행 교육 입과식이 진행됐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FA-50 48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 공군은 위 4명의 조종사를 포함하여 총 8명의 조종사를 교육할 예정이다. 이들은



비행교육에 입과한 폴란드 조종사들 (출처: 뉴스핌)



비행교육에 입과한 폴란드 조종사들 (출처: 국방일보)

FA-50의 모체인 고등훈련기 T-50으로 11주간 비행 이론과 공중조작 등 운용방법을 배운 후 전술 입문기 TA-50으로 공대공, 공대지 전술 등 실질적인 전투기술

을 연마한다. 이 과정을 수료한 뒤에는 FA-50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추가로 숙달훈련을 받는다.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는 러시아의 미사일 기지가 위치한 칼리닌그라드로부터 불과 3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1999년부터 나토 회원국이 된 폴란드는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비단 이웃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자국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자국 항공력의 절반 수준인 MIG-29와 Su-22 전부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했다. MIG-29와 Su-22 같은 소련제 항공기를 공여함에 따라 폴란드 공군은 F-16 48대로 공군을 운영하고 있다. 소련제 항공기에 익숙한 폴란드 조종사들이 임무전환을 하기 위해 F 시리즈 항공기와 높은 호환성이 보장되는 훈련기의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폴란드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통해 FA-50 12대는 내년부터, 잔여 수량 36대는 FA-50 PL(Poland) 버전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인도받게 되었다.

FA-50 PL

FA-50 PL은 기존 FA-50에 공중급유 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공대지·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전반적인 성능을 한 차원 높인 것이다.

특히 AESA 레이더는 동시에 여러 개의 목표물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종래의 기계식 레이더처럼 송신부와 수신부가 따로 되어 회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 수천 개가 붙은 레이더 전반부가 고정된 형태다.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공중·해상·지상의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즉,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소프트웨어의 작동만으로 레이더를 가동할 수 있다. FA-50 PL은 경공격기의 제원으로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 작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F-16과 높은 호환성은 물론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에 탑승할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것에도 최적화된 항공기다.



폴란드 공군 요구도를 적용한 FA-50PL 그래픽형상 (출처: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번 계약은 K-방산의 판로를 유럽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 넓힐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이다. FA-50의 모기체인 T-50은 우리나라 항공기 수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 T-50i, 이라크 T-50IQ, 필리핀 FA-50PH, 태국 T-50TH, 폴란드 FA-50PL 등 벌써 5개국 수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산 항공기 수출의 미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감수 : 생도전대 5중대 훈육관 소령(진) 송문성

- 1) 이스라엘 엘타(ELTA)사의 전투기용 기계식 레이더
- 2) 감시 정찰, 지휘 통제, 정밀 타격 체계 간 상호 운용성을 위해 디지털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기술
- 3) 군용기의 동체나 주익의 아랫면에 무장들을 매달기 위해 미리 설치한 부착부



성무대 핫소식

74기 사관생도 메추리 강화 훈련

메추리들아, 날개를 펴라!

74기 사관생도 메추리 강화 훈련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었다. 이로써 1학년 생도들은 2학년 생도가 될 준비를 하며 처음으로 후배 생도를 맞이할 각오를 다졌다.

‘메추리’란 공군사관학교에서 예비생도나 1학년 생도를 뜻하는 애칭이다. 메추리 강화 훈련에서 ‘메추리’는 1학년 생도를 지칭한다. 메추리 강화 훈련은 진급을 앞둔 1학년 생도들이 후배 생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2학년 생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활 수준 향상과 신체 능력 증진을 도모하는 훈련이다. 메추리 강화 훈련은 공군사관학교의 오랜 전통으로 ‘모범생도 강화 훈련’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진행되어 왔다.

이 훈련을 통해 1학년 생도들은 엄격히 자신을 다스리며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한다. 선배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모범을 몸과 마음으로 익히는 것이다. 더불어 훈련을 같이 받는 동기들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기도 하다.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1학년 생도들은 높은 수준의 생활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선배 생도들로부터 축하와 인정을 받는다. 메추리 강화 훈련이라는 인내의 과정을 이겨낸 74기 생도들은 이제 메추리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75기 후배들을 맞이하게 된다.

생도기자 74± 김동혁
7513439@mnd.go.kr

2024학년도 제76기 공군사관생도 모집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원서접수 2023년 6월 16일(금) ~ 6월 26일(월)

1차 시험 2023년 7월 29일(토)

접수처 www.af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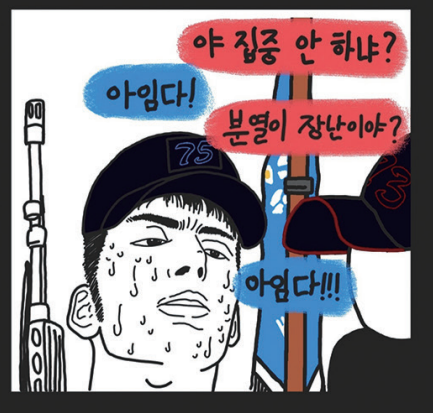
입시문의 043) 290 - 5504



강생도

72± 이건용

— 끝, 새로운 시작 —



생도에게 끝이란 없다. 오직 새로운 시작만이 있을 뿐.
75기 여러분의 생도생활을 응원합니다!



복지중대장 대위 이해성

그래도 잔디는 돋으니까

형형색색의 스모크를 뒤로한 공중분열 대형이 지축을 울리며 사열대를 통과한다. 이어 KF-16 편대가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어깨에 짊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환호성을 내지르는 졸업생들 위로 하늘을 가로지른다. 전투기의 굉음, 환희의 외침, 이뿐일까. 행사를 다채롭게 만드는 군악 연주, 사랑하는 이의 앞길을 축하하는 아낌없는 박수, 지금 이 순간을 빼짐없이 담고자 연신 놀리는 셔터……。 졸업식, 사관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를 맞이한 저마다의 감정이 담긴 소리가 성무대를 가득 채운다.

그마저도 잠시, 소란하던 젊음이 줄지 않는 차량 행렬 속 정문을 빠져나가고 이내 포근한 적막이 찾아온다. 오늘을 열

심히 준비했던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모두가 떠나고 고요가 내려앉은 행사장을 바라보다 문득, 연병장으로 눈이 간다. 노랗게 풀죽은 사이로 군데군데 새 잔디가 고개를 들었다. 봄이 움트려나.

지난 3년간 쌍수리에 들이닥친 겨울은 제법 매서웠다. 어찌나 쌀쌀했는지 정문은커녕 방문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었고, 용기 내 나올라치면 코와 입을 흰 천으로 덮어야만 했으니까. 한데 뭉쳐 온기를 나누기도 부족한데 서로 얼굴을 감추고 기약 없이 거리를 두어야 했던 나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난하고 긴 겨울. 아무리 옷을 껴입어봐도 마음은 여전히 시렸다.

하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고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잔디는 기어코 돌아난다. 그 겨울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몰라도 추위를 이겨내고 서서히 머리를 내민다. 하나, 둘 먼저 일어난 잔디가 미처 올라오지 못한 잔디를 끌고, 눈 깜짝할 새 연병장을 푸르게 뒤덮는다. 잘라내고, 또 잘라내도 끈질기게 키를 키운다. 잠깐, 비슷한 누군가가 떠오른다. 명예광장에 서서 금잔디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친구들이다.

이들은 가진 꿈과 열정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은 정예관에서 나와 한바탕 기지개를 켜고 접었던 날개를 편다. 두꺼운 겉옷과 거추장스러운 마스크에 가려져 온전히 마주하지 못했던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비상

할 준비를 마친다. 하나, 둘 불어넣은 열정의 숨결이 이내 성무대를 휘감는 푸른 봄바람이 된다. 고난과 마주하고, 상처받고, 넘어져도 끝내 해내고야 만다.

삭막한 연병장에 생기를 돌게 하는 건 아무리 곳도 날씨에도 뚫고 올라오고야 마는 잔디다. 이곳, 성무대에서 생동하는 숨을 불어넣는 건, 이 순간에도 각자의 생도 생활을 가열차게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일 것이다. 봄의 초입에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청년 사관생도들이 앞으로 마주할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

그래도, 잔디는 돋으니까.

생도기자 73± 이종수
c26jongsu.lee.kr@afacademy.af.edu

Values we should follow

When I came to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USAFA) to go through Basic Cadet Training, the first thing I saw was the “Core Values” on a big wall: “Integrity First, Service Before Self, and Excellence in All We Do.” These values are what the United States Air Force wants USAFA cadets to follow and pursue first and foremost. As a Korean Cadet attending USAFA, I want to share my thoughts on the Core Values with you.

Integrity First. Integrity in this phrase means “doing the right thing even though no one is watching”. We joined the military to protect our country and its people. Our responsibility is important and carries a lot of weight. Imagine you are a pilot on alert duty; it might seem like nothing would happen, so you decided to drink with your friends on base. If North Korea decides to invade our territory at that very moment, it will result in countless deaths. As you can see from this case, not doing the right thing because nobody was watching can cause huge problems, especially to the people and our nation. Therefore, as cadets, we must maintain our integrity. Not only

because it is the basic requirement for military members, but also, because it would make us better cadets and officers.

Service Before Self. We joined the military to serve. As a military member, I believe we should be ready to fight against any enemy that threatens our country and way of life. We can lose our friends, family and even our own lives in battle, be it on the offensive or defensive side. I know it is difficult to come to terms with these thoughts while carrying on with daily life. However, it is our responsibility to fully recognize what we signed up for and think about what we have to do as an Air Force officer in the future. We must always remind ourselves that service is the overarching premise as to why we are in the military.

Excellence in All We Do. In this context, excellence does not mean that we must do our job flawlessly. Rather, it challenges us to improve slightly every single day. We must continuously improve each day even if it means the difference is ever so slight. No one is perfect. Everyone makes mistakes. However, if we keep making the same mistakes and do not fix them,

the Air Force will be forever stagnant. We have to be stronger than yesterday to defend our country against increasing global threats. We have to be smarter than yesterday, lest the enemy trick us. We have to be better equipped and trained than yesterday to win the war and destroy the adversary. If we settle for where we are now, w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our job, protecting our sovereignty. Being better than yesterday is the fundamental meaning of Excellence in All We Do.

The Core Values provide the

baseline for USAFA cadets on how to become a good cadet and future officer. Despite the different cultures,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academies, those values are extremely important to us as well, since it covers all aspects of the military. It brings us all together as airmen fighting for one common mission: to protect our country and the people. I want you to reflect deeply on the meaning of these values and what you can do to apply them throughout your cadet career.



(출처: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편집국
입니다

공사신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모든 이에게

편집국장 72± 최성영
7513165@mnd.go.kr



유감스럽지만, 이 글이 실린 공사신문은 지금쯤 생도 생활실 복도를, 독자들의 우편함을 며칠간 장식하고 있을 수 있다. 2023년에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 공사신문의 중요성을 논하는 글로 운을 때보고자 한다. 필자가 정의하는 공사신문의 가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한 해간 발간되는 공사신문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편집국입니다’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의무이자 예의라고 생각했다. 공사신문사의 존재 이유를 효과적으로 고지(告知)할 수 있다면, 확실한 구심점을 잡아 신문편집국을 이끌어나가고 싶은 신입의 마음 또한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관학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어디에 쓰임이 있을까? 공사신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공사신문은 기관지로서의 홍보 기능과 대학신문으로서의 언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홍보 기능이란, 공군사관학교가 공공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군대와 대학교 그 사이 어디쯤 위치한 공군사관학교의 설립 목적이 공익에 있는 만큼 학교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렇기에 적절한 홍보 기능을 통한 신뢰 관계 구축은 필수이다. 지금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믿음, 즉 대외적으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공사신문은 주로 보도기사를 통해 이러한 홍보 기능을 수행한다. 성공적으로 개최된 행사와 활동을 주기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에 보도 기사들은 성심껏 반복된다.

언론 기능은 독자들에게 특정 시사에 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이를 다양한 관점으로 비평할 수 있게끔 한다. 공사신문은 주로 오피

니언 코너를 통해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종의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의 역할을 맡은 셈이다. 악마의 대변인이란, 다수파를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선의의 비판자를 뜻한다. 집단이 간과했던 문제를 깨닫게 하고, 빈약한 의사결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다. 이러한 언론의 기능은 조직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이를 통해 공군사관학교는 자칫 동조 효과에 그칠 집단지성을 거르고 깨워낼 수 있을 것이다.



가끔 홍보 기능과 언론 기능이 상충한다고 보는 빅 브라더¹⁾가 있을 수 있다. 공사신문의 언론 기능을 통해 외부인들이 내부 문제를 알게 된다면 달라질 건 학교 평판뿐이라는 것이다. 공군사관학교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홍보 기능의 효과가 단점을 알리는 언론 기능으로 인해 저해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앞 단락에서 공사신문의 언론 기능은 공군사관

학교가 자정기능을 갖추었다는 방증이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언론 기능이 진단한 문제의 과급효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학교는 결코 발전할 수 없지 않을까? 중요한 건, 문제를 다른 이들과 함께 고민할 줄 안다는 성찰의식과 이를 고쳐나가겠다는 용기이다. 그리고 오히려 내부 문제를 진단할 줄 아는 생도 기자의 글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할 줄 아는 구성원이 존재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앞으로 공군사관학교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공사신문의 언론 기능은 홍보 기능의 목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이지, 홍보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 2023년에 발간되는 공사신문은 대안 없는 비난이 아닌, 건설적인 비판이 오차 없이 이해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면으로 구성될 것이다. 공사신문의 지령(紙齡)이 거듭될수록 역할 수행의 역치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나아가 공사신문이 장식용에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글과 새로운 코너를 계속해서 고안하겠다. 이는 모두 거듭 쓴 글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을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신문편집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를 예행연습할 교내 간행물 또한 제작해보고자 한다. 취지에 맞는 글인지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거치겠지만, 학교를 구성하는 생도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나무 숲이 됐으면 한다. 연말에는 구심점이 확실한 경력직으로서의 마음 또한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길.

1) Big Brother: 조지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오세아니아라는 가공 국가의 지도자이자 독재자

성 무 만 평

새로운 시작

생도기자 73± 이세희



추천도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읽기2: 전쟁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교수부 군사전략학과 중령 이지원

“이번 전쟁은 아테네인들과 펠로폰네소스인들이 에우 보이아 섬을 함락하고 맺은 30년 평화조약을 파기함으로써 일어났다. 앞으로 어느 누구도 왜 헬라스인들 사이에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도록, 나는 그들이 조약을 파기하게 된 원인과 그들의 쟁점을 먼저 기술하겠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말하자면 아테나이의 세력 신장이 라케다이몬인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다.”(1.23.4-6.)

갑자기 사람이 무어나고 묻는 이에게, 친절하게 사랑의 정의를 알려주는 사람은 결코 친절하지도 싶지 않은 부류다. 그 답이 엄밀할수록 혐오감은 더 커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답의 내용보다 질문의 의도가 더 중요하니까. 그 질문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는 고백일 가능성이 크며, 처음 직면하는 감정의 격변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터져 나오는 탄식에 가깝다. 누구에게 묻든 그 답은 허무하겠지만, 그걸 가슴에 한 번도 담아보지 못한 젊음은 어쩐지 사는 게 허무할 것 같은 그런 물음이다.

전쟁이 무어나는 물음도 비슷하다. 평화로울 때는 아무도 그걸 묻지 않다가 그 참상 속으로 별안간 처박힌 후에야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물으니까. 그러니 가슴에 한 번도 그 물음을 담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쩔든 사는 게 축복이다. 인류에게 의식이란 것이 생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이가 저렇게 한탄했을까 생각하면, 문득 아득해진다.

투퀴디데스의 책은 그중 가장 오래된 물음이자 가장 진지한 답변일 것이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전 인류에게 일대 사변이었다”(1.1.2.)라고 선언하며, “그토록 많은 도시가” “폐허가 된 적은 없었”으며, “그토록 많은 난민이 발생한 적도, 전쟁이나 당파싸움으로 그토록 많은 인명이 손실된 적도 없었다”라고 탄식한다. 하지만 그는 탄식에만 그치지 않고 전쟁을 마치 질병처럼 다루었다.(도널드 케이건, 「투퀴디데스, 역사를 다시 쓰다」, 휴머니스트, 2013, p.22~27) 특히 질병의 증상을 분석하고 일반화해 환자의 질병이 어떻게 진행될지 파악하려 애썼던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 큰 병(病)에 걸린 사람이 자기의 증상을 관찰해 낱알이 기록하듯 몸소 겪은 전쟁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훗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자신의 연구를 통해 그 전쟁의 예후(prognosis)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미래사에 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게 여겨질 “영구장서용”으로 그 책을 썼다.(1.22.4.)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질병의 “진정한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며, “아테네의 세력 신장”이 스파르타인들에게 공포감을 초래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그 전쟁의 원인(遠因, underlying causes)을 제시한 후, 아테네인들과 스파르타인들 사이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근인(近因, immediate causes)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원인과 근인으로 나누어 전쟁의 원인(原因)을 분석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도 전쟁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그가 원인(遠因)으로 제시한 짧은 문장은 후대 전쟁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2,500년 동안 메아리가 되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패권 도전국의 국력이

급격히 성장하여 기존 패권국에 두려움을 야기하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관찰하였고 이를 ‘세력전이(Power Transition)’라고 명명하였다.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는 그 현상에 ‘투퀴디데스 함정(The Thucydides Trap)’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그는 지난 500년 동안 그런 상황이 총 16번 반복되었고 그중 12번이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며, 현재 미·중 관계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 경고는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의 속 깊은 두려움을 드러내며 즉각 세계적인 논쟁을 촉발했다.

이렇게 보면 전쟁에 관한 영원한 필독서를 쓰겠다는 그의 소망은 성취된 듯하다. 하지만 그가 되살아난다면 자신이 함정(檻穽)의 일종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울 것 같다. 그리고 후대인들 대부분이 자기 책에서 단 한 문장만 읽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할 것이다. 그 한 문장으로 그 거대한 전쟁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평생을 바쳐가며 나머지 800쪽(한국어판 기준)을 쓸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 실제로 그 나머지 부분에서 그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믿음이 어떻게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지를 명료하게 드러냈다. 그렇게 보면, ‘함정’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함정’에 빠졌다는 믿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경고판을 보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화와 국제정치적 평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그런 위험천만한 사회적 질병의 초입에 놓여 있다면, 투퀴디데스의 책을 통해 앞으로 그 질병이 어떤 예후를 보일지 가늠해 보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믿음이야말로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어찌면 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처방이 아닐까? 그러니 다시 과감하게 권한다. ‘투퀴디데스 함정’이 걱정된다면 우선 그의 책부터 읽어보라고. 미·중 간의 갈등과 그 사이에서 우리의 운명이 우려스럽다면, 일단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영화는 영화다

1917

체리 나무는 한 종류가 아니에요

탕! 1914년, 사라예보에 울린 총성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 침공은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의 강국들을 도미노처럼 전쟁의 수렁으로 빠뜨렸다. 모든 전쟁터가 그렇겠지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대치한 서부 전선은 특히 참혹했다. 많은 청년들은 어둡고 축축하고 더러운 참호에서 적군의 참호로 진격해야 했다. 운이 좋으면 며칠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참호 속 병사들은 알고 있다. 동료의 시체를 방패 삼아 점령한 이 참호도 곧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이런 의미 없는 참호전이 계속되던 1917년 어느 날, 데번셔 연대의 에린머어 장군은 고민에 빠진다. 장군은 독일군이 후퇴하는 척하며 데번셔 1대대를 엄청난 규모의 병력으로 유인하고 있음을 알아냈지만, 독일군이 모든 통신선을 끊어 버렸기에 이 사실을 대대장에게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긴 고민 끝에 에린머어 장군은 사람을 통해 직접 이 사실을 대대장에게 전하기로 결정한다. 1,600명의 목숨이 담긴 이 작전은 무인지대를 맨몸으로 통과해야 하는 위험한 작전이었다. 블레이크 일병과 윌리엄 스코필드 일병은 1대대원들과 1대대에 있는 블레이크의 친형을 살리기 위한 위험한 임무에 뛰어들게 된다.

영화 「1917」은 1차 세계대전이 한참인 1917년, 평범한 두 영국 청년의 목숨 건 여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이

들의 여정은 영웅의 여정이 아니었다. 이 여정은 1917년, 시대의 비극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사진전과 같다. 그 사진전에는 썩어 형체조차 사라진 시체, 그 썩은 시체에 흑시 먹을게 남았는지 찾아다니는 쥐들, 그리고 독일군이 베어버린 체리 나무들의 사진들이 있다.

영화에서 체리 나무는 두 번 전시된다. 첫 번째 체리 나무는 스코필드와 블레이크가 버려진 헛간에 들어갈 때, 쓰러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비록 체리 나무는 쓰러졌지만, 그들의 꽃은 아직 썩지 않았다. 체리 나무는 쓰러진 채 분홍빛을 잃지도 않은 채로, 회색빛의 전쟁터에서 예쁘게 피어 있다. 두 번째 체리 나무는 블레이크가 물살에 휩쓸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물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뗏목으로 등장한다. 스코필드는 기절한 채로 뗏목에 기대어 그 물살에서 살아남는다.



블레이크에게 체리 나무를 설명해 주는 스코필드 (출처: 네이버)

처음 등장한 쓰러진 체리 나무는 역울하다. 체리 나무가 죽은 건 체리 나무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독일군의 퇴각로에 있지 않았다면, 나무는 죽지 않고 아직도 아름다운 생명력을 뽐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등장한 체리 나무는 숭고하다. 체리 나무는 죽어 그 몸통만 남아 물에 떠다니고 있으면서도 죽을 위기의 스코필드를 살려줬기 때문이다. 체리 나무는 단순한 영화적 소

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다. 이렇게 역울하지만 숭고한 체리 나무는 전쟁터에 참전한 청년들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다. 이 나무는 1917년에 전쟁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청춘의 생기를 보여줬을 청년들을, 이 끔찍한 전쟁터에서 동료를 위해 목숨마저 마다하지 않고 숭고하게 희생한 청년들을 의미한다.

이런 체리 나무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스코필드 뿐이다. 과수원에서 자란 스코필드는 블레이크에게 체리 나무에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음을 말해준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체리 나무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체리 나무에는 하나뿐이라 생각한다 하소연한다. 체리 나무의 상징성을 생각해보면 이 하소연은 절대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스코필드의 이 하소연은 체리 나무에 여러 종류가 있듯,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종류로 묶인 수많은 사람도 각자의 이야기를 간직한 청년임을 블레이크에게 가르쳐준다. 이 일침과 같은 하소연은 만약 우리가 그 조금의 관심도 가지지 않아,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며, 이루고 싶은 꿈들이 많은 청년이 아닌 그저 군인이라는 하나의 무엇인가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만약 우리가 그의 일침을 무시하면 우리는 이 두 청년이 걸었던 비극적인 사진전을 다시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이 경고를 새겨두고, 전쟁터에 싸우는 이들이 군인이기 이전에 한 청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체리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고 그 차이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의 그 작지만 따뜻한 관심이 우리를 거대하고 비극적인 역사의 반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